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물품 우선 구매 25% 줄었다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17개 공공기관 구매액 1조1027억원  
전년보다 3629억원 줄고 목표액 1조4498억원 크게 못미쳐  
한전 긴축재정 영향...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곳은 늘어나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7곳의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보다 2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지난해 지역물품 구매 목표치를 1조4498억원을 잡았지만, 달성률은 76% 수준에 그쳤다. 매년 전체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좋지 않은 재정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

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7곳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은 1조1027억원으로 전년(1조 4656억원) 대비 3629억원(24.8%) 감소했다. 지역 우선구매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경제 활

성과 노력에 따라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감소로 전환됐다.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은 지난 2021년 8120억원에서 2022년 1조4656억원으로 1년 새 80.5% 급등했지만, 지난해 1조102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공시된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물품 구매계획 금액은 1조4498억원이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한전이 지난해 200조원을 웃도는 부채와 45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긴축재정을 유지함에 따라 지출을 줄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전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은 1조239억원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7개 공공기관들의 전체 우선구매액의 92.9%를 차지했다. 이어 한전KDN(163억원), 한전KPS(140억원), 한국전력거래소(120억원) 등 순으로 구매 금액이 많았는데, 한전 계열사 4곳이 전체 우선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96.7%에 달했다. 전체 구매액 감소와 맞물려, 지난해 17개 이전기관 중 전년보다 구매금액이 줄어든 곳은 9곳으로, 과반 이상이었다. 전년 대비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이 늘어난 곳은 8곳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36억 2200만원→92억 600만원)이 156.4%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57.5%), 한국문화예술위원회(+35.7%), 농식품공무원연수원(+

2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7%) 등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9곳으로, 국립전파연구원(32억 8100만원→21억 2300만원)이 35.3%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7.1%), 한국전력공사(-2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의 한 기업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뿐 일정 금액 또는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이전 기관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법률에 명시해 지역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상임감사-MZ직원' 격의 없는 소통 '버거 청담회'

전국 사업장 청년직원 30여명 참여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27일 이상규 한전KPS 상임감사와 MZ세대가 모여 청담회를 주제로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한 '버거 청담회(靑談會)'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청담회는 한전KPS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인 조직 특성을 고려해,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상임감사가 마련했다. 청담회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모인 30여명의 청년 직원들이 참여했고, MZ직원들과 이 상임감사가 함께 햄버거 식사를 하며 회사의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소통의 첫걸음으로 떠오른 'MBTI'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형식을 활용해 소통의 장을 열었으며, 이어진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년위원 대표로 참여한 김빛누리 씨는 "회사 최고 감사책임자와 편한 분위기에서 가깝



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제1기 '버거 청담회' 청년위원으로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하고 윤리경영 실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젊은 직원들의 고

민과 아이디어 등을 경청할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렴 정책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제 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중앙운영대의원회에는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과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과 지역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ESG 경영 확산 및 변화되는 농업 환경 대응 방안과 지역별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

해 지역별 농사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024년도 공사 주요 업무 ▲기금 등 재단 상황 대응 및 수자원 분야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을 중심으로 농촌 분야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력거래소, 대학생 305명 대상 '에너지 공동학점과정' 운영

21개 대학 참여 온라인·실시간 교육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0일 전국 21개 대학의 30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은 전력거래소 뿐만 아니라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력산업 융합형 인재양성 및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교육에는 주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전남대·경북대·광운대 등 전국 29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교육 이수 후 대학교 학점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교육 기회 확대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2개 대학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먼저 진행한 뒤, 온라인 교육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온라인 교육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송변전설비 정비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실무교육 외에도 취업·면접특강을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운영된다. 박인석 전력거래소 교육연구원 원장은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7월19일까지 신규 교육콘텐츠·우수 강사 인력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7월19일까지 농·수산물 유통과 수출, 식품산업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신규 교육콘텐츠'와 '우수 강사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사 모집 분야는 ▲농수산식품 마케팅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지역먹거리계획 ▲농수산물품 창업 등 총 12개 교육 분야로, 최신 유통환경 변화와 트렌드에 적합한 우수 콘텐츠를 제안한 강

사에게 교육원 출강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교육원 강사 인력풀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강의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양식은 aT 누리집(www.at.or.kr)과 교육원 누리집(edu.a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